

■ 주요 기사

○ 근로시간 관련 (2건)

조선	줄지않는 노동시간
동아	한국 노동시간 더 늘어... 獨보다 年 31일 길어

○ 취업난 관련 (2건)

한경	역대급 취업난...생계형 트럭에 매달리는 청년들
	더 좁아진 취업문..."올해 채용규모 5% 준다"

○ 저출산 고령화 관련 (2건)

경향	[단독]'쉬운 해고' 추진하며 아이 더 낳으라는 정부
	[단독]저출산·고령화 더 빨라졌다

○ 일본, 저출산 고령화 대책 관련 (1건)

동아	"암환자도 일할수 있게"... 日, 부족한 일손 확보위해 '노동개혁'
----	--

■ 주요 칼럼 · 사실

○ 일본,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관련 (1건)

중앙	[글로벌 아이] 직장맘 꿈을 현실로 만든 일본 CEO
----	---

○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1건)

매경	[넥스트코리아 뉴어젠더]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노동시장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노동	제목	줄지않는 노동시간 A8면
		내용	30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273시간(주당 43.6시간)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13년(2247시간)보다 26시간 늘어났다. 2273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평균(1766시간)의 약 1.3배 수준이다.
중앙	고용 복지	제목	[글로벌 아이] 직장맘 꿈을 현실로 만든 일본 CEO A26면
		내용	일본 IT 기업 웨스 애플리케이션스의 마키노 마사유키 CEO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사내 어린이집 설립을 직원들에게 먼저 제안. “우수한 직원이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퇴직하는 것을 막고 싶다”며 “인재에 대한 투자”라고 했다. 안정된 가정은 회사의 힘이 되고 있다.
동아	노동	제목	한국 노동시간 더 늘어… 獨보다 年 31일 길어 A16면
		내용	30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47시간에서 2015년 2273시간으로 2년 전보다 26시간 늘었다
		제목	“암환자도 일할수 있게”… 日, 부족한 일손 확보위해 ‘노동개혁’ A22면
		내용	아베 “맹렬사원은 더이상 없다” 재택근무 확대-근로시간 단축 추진. 기업에 임금인상-정년 폐지 권유도…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에 총력. 일각 “죽을 때까지 일하게 될 것”
매경	노동	제목	계약직 뽑는데도 부모직업 묻는 이력서 5면
		내용	매일경제가 2011년부터 2017년 1월 현재까지 총 2400여건의 대학 교직원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대학교직원신문’ 채용 게시판에 올라온 사립대학 공고 중 대다수가 가족사항이 기입된 이력서를 요구하고 있었다
		제목	[넥스트코리아 뉴어젠더]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노동시장 31면
		내용	실리콘밸리는 기업뿐 아니라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가히 혁신적이다. 여기서는 이른바 직장 건너뛰기(job-hopping)가 만연하다. 기술자들은 심지어 주차장도 바꾸지 않고 바로 옆 직장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노동시장이 유연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경	노동	제목	파업에 발목 잡힌 국내 자동차 생산...2010년 이후 최저 12면
		내용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 쌍용 한국GM)의 작년 국내 자동차 생산은 422만8509대로 2015년(455만5957대)보다 7.2% 감소했다. 2010년(427만1741대)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 복지	제목	역대급 취업난...생계형 트럭에 매달리는 청년들 2면
		내용	청년들이 '생계형 트럭'에 매달리고 있다. 생계형 트럭은 포터와 봉고 등 1t짜리 소형 트럭을 말한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구직을 포기한 대신 운송업이나 노점 판매 등 이른바 '길거리 장사'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목	시간선택제 공무원 3배 늘린다 8면
		내용	인사혁신처는 2월1일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공무원의 시간선택제를 확대한다고 발표. 시간선택제는 자녀보육, 학업, 병간호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는 제도
		제목	더 좁아진 취업문...“올해 채용규모 5% 준다“ 25면
		내용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상장사 918개를 대상으로 올해 채용 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4만5405명으로 지난해(4만7916명)보다 5.2% 감소할 것으로 예상
제목	[기고] 주거불안 해소, 저출산 극복의 한 방법 30면		
내용	남경필 경기지사, 경기도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2020년까지 '따뜻하고 복된' 따복하우스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 따복하우스 도입으로 출산율이 하루아침에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주거 안정을 통해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실천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		
경향	고용 복지	제목	[단독]‘쉬운 해고’ 추진하며 아이 더 낳으라는 정부 13면
		내용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고 아이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장밋빛에 그칠 것으로 전망. 정부가 쉬운 해고 등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고용불안을 높였고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걸 더 꺼리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제목	[단독]저출산·고령화 더 빨라졌다 13면
		내용	2035년 한국의 유소년 인구는 5년 전 추계보다 27만명 더 줄어들고 고령자는 43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끝>